

2월 16일 (월) 저녁 8시(동부시간)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응답 — ‘가난과 세계화’ 온라인 기도의 밤

동중부 CLC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폭력과 불의, 그리고 구조적인 빈곤으로 깊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멀리 들려오는 전쟁의 비극부터 우리 곁의 소외된 이웃까지, 그들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공동체는 '가난과 세계화'라는 현대 사회의 프런티어를 직시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부서진 이들' 곁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고통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저희 동중부 CLC의 공동 사도직인 온라인 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자 하는 작은 취지로, 삶 안에서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제안을 만들어 보았으니 이 제안이 우리 공동체가 '활동하는 관상가'로서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여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머물며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됩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채민야 안나 올림

동중부 CLC 공동 사도직 빈곤과 세계화 2월 기도 주제와 실천 제안

1. 2월 기도 주제:

"인간의 악으로 희생된 죄 없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해악과 갈등,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우리의 사도적 사명: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식별에 마음을 모으며, 우리 CLC-USA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모든 이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며,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3. 2월 기도 주제를 우리 일상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세 가지 단계의 실천을 제안해 드리며 그 실천이 내 마음과 우리 이웃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활성찰 시간에 나누어 보시면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기억하기 (불의에 맞서는 기억)

- 가장 큰 악은 고통받는 이들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 '이름 없는 이'를 위한 지향: 매일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는 전쟁, 분쟁, 범죄의 희생자 중 한 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그날 하루 동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동반합니다.

2) 회개를 위한 '다리' 되기 (화해의 직무)

- 가해자의 회개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영적 도전입니다.
- 비난 대신 성찰: 사회적 갈등(인종차별, 정치적 대립 등)이 일어날 때, 가해자를 단순히 '악마화'하며 비난하기보다,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눈멀게 했는가?"를 묻고 그들이 진리를 깨달도록 진심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 내 안의 '가해자' 마주하기: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구조적 불의(소비 중심적 삶 등)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며 나부터 먼저 '회개'의 본보기가 됩니다.

3) 평화의 문화 건설 (일상의 실천)

- 전쟁은 멀리 있지만, 갈등은 가까이 있습니다.
- 언어의 정화: 증오 섞인 말, 차별적인 농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거부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을 줄이는 일상의 사도직입니다.
- 평화 기금 기부: 전쟁 난민이나 범죄 피해자 회복을 돋는 단체(예: 가톨릭 구호 서비스, 난민 기구 등)에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나의 기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합니다.